

수석보좌관회의

태풍피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큰 것 같습니다. 걱정입니다. 신속히 대책을 다시 한 번 다질 것을 각별히 당부해 주십시오. 어려움 속에서도 이재민 성금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. 일반 국민들이 피해지역 국민들을 돕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.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힘을 모으니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정부로서도 국민 뜻과 함께 최선을 다해 수해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, 국민의 모범적 미담을 잘 모아서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.